

안보통일센터

# 北·中 비공식무역 확장 현황 및 관련 검토사항

2017. 7. 31



SECURITY FOCUS

# 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  
여의도연구원  
THE YEUIDO INSTITUTE

## □ 美 트럼프 대통령의 北·中 간 무역 40% 증가 비판 및 중국의 반박

- 트럼프 트위터(7.5), “지난 1/4분기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40% 가까이 증가”
  - 北의 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美 고강도 대북 제재 예고
  - 트럼프, 北·中 간 무역 급증을 지적하며 중국 비판
  
- 中 관영매체 환구시보(7.7), 트럼프의 北·中 간 무역 40% 증가 주장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박
  - “1분기 北·中 간 무역 수치 객관적으로 해석해야” 제하 社評에서 北·中 간 무역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, 1분기 무역 증가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함을 지적
  - 인도주의 교역이 4배 늘었을 뿐,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님을 강변
  -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경제를 무너뜨려 북한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와 중국사회가 바라는 바가 아님

☞ “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”는 美측 주장과 “對北 인도적 식량 수출만 늘었을 뿐 北·中 간 무역 감소세”라는 中측 반박의 충돌

- 최근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, 북한의 對中 수출은 2017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3.2% 감소했지만 對中 수입은 29.1%나 증가해 北·中 총무역액은 10.5% 늘어난 것으로 추계
- 對北제재가 지속되고 그 강도 또한 강화됐지만, 北·中 간 무역은 오히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

## □ 北·中 접경지역에서의 비공식무역, ‘풍선효과’ 처럼 확산 실정

### ○ 北·中 간 공식무역이 비공식무역으로 불가피하게 전환

- 접경지역 중국측 세관의 통제 강화로 북한 외화벌이 축소 지속, 그 충격 여파가 북한 내부로 확대
- 결국 北·中 간 공식무역은 비공식무역의 전환으로 상호 탈출구를 모색

### ○ 북한의 對中 무역전략 전환 및 중국의 비호

-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이후 北·中 간 비공식무역(밀무역) 확대 추세
- 北 사업기관 관여로 인해 北·中 무역업자간 비공식무역이 안전하게 추진되고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
- 北 사업당국 관여의 의미는, 그동안 北·中 간 공식무역이 중국측의 다양한 경제제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北·中 간 무역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반증
- 이에 따라, 北 사법당국이 본격적 개입을 통해 北·中 간 공식무역에서 비공식무역으로 전환시킴에 따른 안전을 담보해 줌으로써 공식무역의 지속적 감소를 비공식무역으로 상쇄시키고 있는 실정

### ○ 그러므로, 중국의 北·中 무역 감소세라는 반박은 ‘눈감고 아웅하는 격’

- 비공식무역의 확대는 밀수라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
- 비공식무역 또는 밀수가 보따리무역 규모로 작다고 평가할 수 없음
- 공식무역이 음성적으로 전환되어 ‘비공식무역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정한 규모로 파악되므로, 관련 상황의 파악이 시급한 실정
- 요컨대, 중국은 北·中 동맹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워힘

## □ 검토사항

### ○ 北·中 무역 변화의 면밀한 검토와 감시 필요

-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, 北·中 간 무역의 음성적 발전은 향후 미국의 對中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로 이어질 것임
-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가 한국산업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

### ○ 국회 정보위와 외통위 등 관련 사항 점검 필요

- 北·中 무역관계의 변화양상 및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의 시급한 파악 필요